

재활 간호학 발전을 위한 제안

서 문 자
(서울의대 간호학과)

1. 서 론

심신장애자의 사회적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자의 해」로 선포함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는 장애자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부단한 의지와 노력을 표하고 있다. 이들 장애자들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고취와 이에 필요한 환경여건의 개선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재활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장애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자선쇼, 기념행사 등이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사회에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재활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와같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 있고, 또한 재활원의 태부족, 재활시설의 미비, 잘 훈련된 재활요원의 부족, 그리고 재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숫적, 질적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사회의 폐쇄적인 의식구조와 병대, 주위환경적 장애요소 등은 실로 재활에의 길을 아직도 멀고 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三大 건강사업을 들고 있다. 즉, 치료사업(일차사업),

예방사업(이차사업), 그리고 第3의 사업으로 재활사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第3의 재활사업은 일차, 이차의 사업에 비하여 훨씬 부진한 상태로써 매우 초보적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재활은 의술뿐만 아니라 心理, 사회, 직업 등 여러 사회적 분야와 긴밀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의 하나라고 보므로 이들 인접학문들과의 밀접한 유대 관계가 선행되어야 종합과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시대적인 요청으로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늘 환자의 대변인인 입장에서 우리 간호전문요원들도 재활간호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 등을 분석하여 이 특수한 간호분야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여 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차체에 재활간호의 개념과 그 대상에 대한 분석 및 재활간호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서 재활간호교육과 사업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되려고 몇가지 제언을 시도하여 본다.

2. 재활간호개념의 확립

사실 재활간호란 그다지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과거에 인류역사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간호는 존재하여왔고 이미 그때 재활은 간호개념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단지 전통적으로 치료지향적인 의료술의 발달로 거의 최근까지도 환자의 신체적 병소만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것만이 건강유지의 필수조건이라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실상 재활측면으로의 환자간호나 치료는 상당히 침체된 입장에서 그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운데 재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세계 제2차대전을 전후로 많은 전쟁부상자를 돌보던 Rusk박사가 신체적인 장애와 신체일부의 손실 등으로 인간의 가치가 격하되는 것을 목격하면

서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재활이라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전개하여 인간의 잔존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Ethics를 기본 바탕으로 한 재활학문의 기초적이론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재활간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A. Morrisy도 인간의 권리와 생명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가 재활간호의 주요개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활간호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즉, 심신장애자(Disabled Person)가 그 자신의 난점(Handic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잔존한 모든 인간의 능력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만족할만한 人生을 영위하도록 돕고 지지해 주는 것이 재활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병이나 장애 초기부터 재활개념이 강화된 간호가 계획되고 또한 수행되어야 하며,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현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주고 제반 간호의 지속성(Continuity)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므로써 이는 실로 현재 재활간호의 개념을 이루는 기본적 자세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이와같이 재활의학과 간호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일찍이 인식되면서 근대에 이르렀고, 재활의 목적은 급성질환이나 손상 또는 재해에 대한 치료와 간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완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라라고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Rehabilitation 이라고 하며 그 어원은 reablement로서 다시 기능을 찾는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인식되어 지기도 하였다. 古代에는 장애자들을 천벌을 받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격리, 감금, 고문, 추방 등의 천형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으며 社會적으로 낙인찍힌 오명의 명에속에 어둠의 길에 방치되어온 암흑의 시기도 있었다.

그 후 장애자에 대한 개념이 차츰 변천하여 재활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병이나 손상 등으로 부터 신체적 회복만이

최대의 쟁점으로 대두하였었다. 그 후 더욱 사회가 급변하고 文明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의학 및 의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의 사망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질병의 양상이 다양하게 바뀌게 되면서 질병은 장기화, 만성화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대두되면서 재활을 요하는 대상인구의 숫적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간호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겠다. 또한 산업, 공업의 급진적 발달로 예기치 못했던 사고의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불구자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재활과정이 더욱 강조되면서 단순한 신체적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의 적응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치있는 인간으로의 회복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 그리고 재활이 이러한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발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고려하여 장애인구의 산업사회로의 재흡수를 통해 경영의 묘를 살려 보자는 公理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다면적인 재활의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 이와같은 제반과정을 통하여 재활개념은 인간을 여하한 조건하에서라도 육체적 회복은 물론, 사회적,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으로 질병이나 불구 이전의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가치있는 생을 누리게 함은 물론 사회에서 주요인적자원으로 인정되어, 장애자들이 건강에의 권리를 획득하고 생산적이고 보람된 생을 영위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재활간호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므로 재활간호의 발전적 첫 단계로 간호사협회나 교육기관에서 이 개념을 기본 자세로 수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3. 재활간호 교육과정의 육성

우리나라 재활간호학의 정규교육은 일반적으로 통합화된 간호교육과정에서 함축된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거나 극히 일부의 대학에서는 재활

간호학이 個別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몇몇 우수대학의 Curriculum에 의하면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에서 재활간호학을 통합된 학문으로 다루고 있거나 또는 만성병간호나 장기환자간호라는 개별과목으로 조직된 곳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직접 방문 시찰하였던 호주, 뉴질랜드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주로 post basic course로 재활간호과정을 특수임상간호교육과정으로 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간호교육내용이 통합화하는 경향의 우리 간호교육과정에서 유독 재활간호학만을 별개의 과목으로 띄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재활간호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로써 全人的 간호수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申은 그의 「재활의학분야의 육성방안」이라는 서술에서 의료요원 중 환자와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간호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재활간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호대학을 비롯한 간호교육기관에서 재활간호학의 강의와 실습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여러 학자들도 재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재활간호교육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現 國內 간호교육교과과정상 어느 정도의 재활간호내용이 교육되고 있는지 조사되지 않았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시점에서 재활간호학의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기란 다소 두터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재활간호학은 성인간호학이나 아동간호학에서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산발적으로 case by case에 의한 교육이 과연 체계적인 재활간호의 이념과 기술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모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人生과정인 전 간호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 승평적이고 논리적인 재활간호 교과과정의 전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2-3년간 재활간호

학을 담당해온 필자의 사견으로서는 아동간호, 성인간호, 정신간호, 심지어는 지역사회간호영역에 이르기까지 좀더 advanced되고 잘 조화된 재활간호교육내용의 편성이 재활간호학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부라고 사려되며 상당히 시급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4. 재활간호 대상에 대한 이해증진

재활간호의 대상인구는 어떠한가? 이들 client들은 어떠한 요구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등은 재활간호학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특히 재활간호는 client중심의, client를 위한, 그리고 client에 의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간호요원과 client와의 상호인간관계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와같은 관계형성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겠다. 즉, 재활간호과정에 있어서는 client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간호과정을 진행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이며 이에 간호요원의 역할은 이들 client의 need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재활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조성시켜주는 상담자 또는 teacher의 역할로 강조될 수 있다.

이들 재활대상자들의 本質的 구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個人的(Intra personal)으로, 또는 가족이나 소집단의 일원(Interpersonal)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인자로서,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Community)의 한 구성요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을 위한 care는 그 내용이 다면적이다. 즉 일차적 care(primary care), 급성 care(acute care), 그리고 만성 care(chronic care)를 다루므로써 모든 건강으로의 변화된 과정에서 이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와같이 다면적인 client를 임상적으로 분류하면 은동기능부전(예: 지체부자유자, 감각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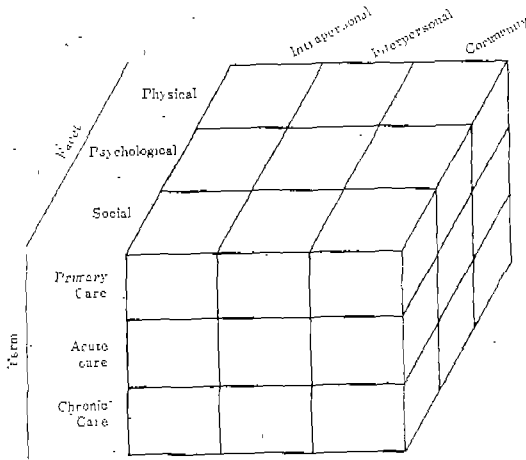


그림 1. Client Target System

부전(예 : 맹인·농아), 언어 및 지능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성장과 발달 및 노년화 등의 전인생과정에서 모두 야기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밖에는 재활대상에 대한 분류는 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여하간 재활간호의 대상은 실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재활간호학 발달단계의 기본적 요소中的 하나라 보겠다.

5. 재활과정(Rehabilitation Process)

재활과정이란 단순한 치료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시작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의 장기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편의상 몇 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즉, 재활대상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사정(Assessment)을 통하여 그의 잔존능력, 제한점 및 사회교육적 배경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장애자가 적극적으로 재활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조성화 단계(motivation stage)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동기화 과정은 대상자가 내외적 환경에 얼마나 만족해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요구분석에 이어 적극적 태도를 지니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후 셋째 단계로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재활 program의 계획이다. 이 program 진행중

에는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간호는 물론 배설, 자가간호(self care), 일상생활동작, 기동력 증진 등의 간호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같은 계획과 간호수행후 마지막 단계로는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므로 Discharge planning과 Follow up care에 따르는 추후재활간호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과정을 통하여 재활대상자는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여건하에서라도 제한된 상황을 수용하면서 의미있는 人生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미처 형성되지 않았던 습관을 기르는 습관화과정(Habilitation process)으로 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예 : 뇌성마비아) 또, 손실된 기능을 재형성하는 과정(Re-habilitation Process)을 통하여 잔존능력의 개발을 촉구하기도 한다(예 : 뇌졸중). 이렇게 형성된 행위(Behaviors)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용될때 재활과정은 성공적이라고 하겠다.

흔히 재활과정은 질병회복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통적 개념이 있었다. 그러나 전 재활과정은 통합한 분야로써 각 단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단계가 끝난뒤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재활의 계획이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곧 client의 질병과정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고 실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로 재활간호의 개념과 원칙은 간호대상자를 中心으로 한 그의 전간호과정을 통하여 적절히 응용되어야 하며 더나가서 불구의 예방이라는 대명제하에 더욱 진보된 재활과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인간의 성장발달과 노년화 과정 등 전인생과정을 통하여 질병예방, 치료, 간호, 사회복귀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곧 재활과정이라고 가정해 볼때 포괄적인 재활과정의 실천이 가능해질수 있을 것이다.

6. 재활간호역할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재활간호의 내적가치

를 논하여 왔다. 이러한 가치성에 대하여 적절한 간호활동의 전개가 뒤따라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잘 훈련된 전문직요원의 기능(activity)이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건강전달체계가 그러하듯이 재활과정에 있어서도 공동목표를 가진 전문요원의 숨직한 Tea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즉, Client의 장·단기 문제를 파악하고 재활의 방향을 정하는 모든 Decision Making과정에서 여러 전문요원이 자기의 기술, 지식, 판단력이 총합할때 Client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재활 Team에는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중 간호원의 역할은 모든 재활 program진행에 있어서 中心的 요소라고 보겠다. Client는 여러 종류의 재활 Care를 받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바삐 다니게 된다(그림2 참조).

이때 자칫하면 Client는 이곳저곳으로 tossing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재활대상자는 재활을 향한 구심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특히 모든 재활 Team 가운데에서 환자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치료과정을 중재하여 주고 그들이 습득한 제 기술과 능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격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재활간호원은 모든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술을 연마하여 신뢰받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원과 Team Work간의 관계는 그림 2에서와 같은 상황이기 보다는 그림 3의 형태가 더욱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7. 결 어

지금까지 재활간호학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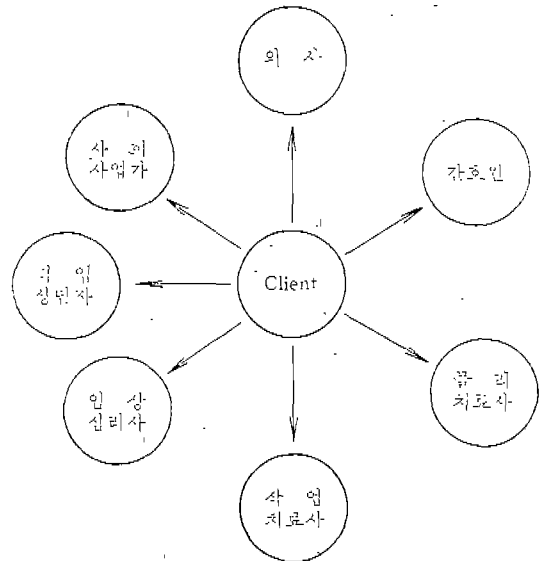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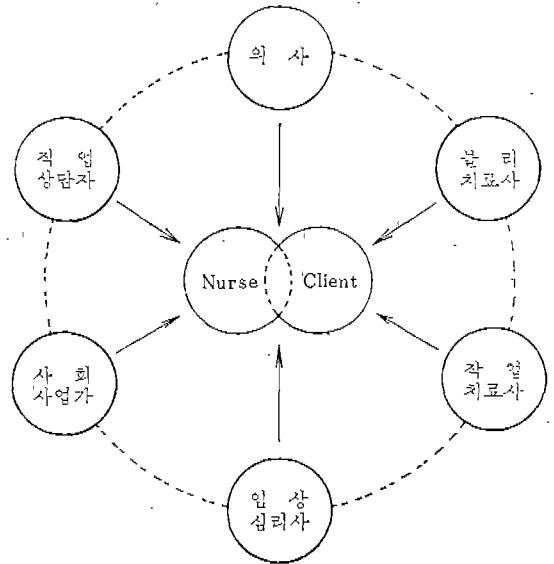


그림 3

여러 측면으로 재활간호학을 고찰하여 보았으며 이로써 재활간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발전적 요소라고 보는 몇가지 제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재활간호학의 개념을 확고히 하여 간호교육기관이나 간호사업기관에서 실재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활간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간호원의

특집 : 장애자의 복지전망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재활간호의 대상(Client)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증진으로 재활간호의 광범위한 영역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활의 영역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인 간호원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며, 또한 견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언은 재활간호학의 향상을 도모하는 작은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나가서 어둠과 비통의 사회의 뒤안길에 처해있는 모든 장애자들에게 밝은 내일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

참 고 문 헌

1. HIRSCHBERG et al : Rehabilitation, 2nd Ed. 1976, Lippincott Comp.
2. R. BORCH : Elements of Rehabilitation in Nursing, 1976, C.V. Mosby Company
3. 이은옥 외 : 만성 및 재활간호, 1979, 수문사
4. 신경순 : 재활의학의 육성방안, 대한의학협회지, Vol. 19, No. 6, June 1976.
5. 보고서 : 장애자 복지대회, 한국신체장애자 재활협회, 1981.
6. Victor A. Christopher : Rehabilitation Nursing, Perspectives and Applicatoin, 1974, McGraw Hill, Inc.

＝看護係人士動靜＝

★ 이성옥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고려병원 간호과장)이 제28회 나이팅게일 기장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5월 25일 적십자국제위원회로부터 수상자확정통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제76회 창립기념식에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28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후보는 25개국에서 49명의 추천을 받아 21개국에서 36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번이 한국에서는 22번째 수상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이다.



★ 김모임 국회의원 사무실이 여의도 의원회관 5동 206호로 정래했다. 직통전화는 782-7360이며 교환은 7802-2581(交) 526이다. 한편 김의원 비서관에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출신 이규정씨가 부임했다.

★ 대한간호협회 강원지부 상무에 강문영회원이 새로 부임했다. 김상무는 춘천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병원과 독일, 쿠웨이트에서 임상에 근무했고 평성군보건소에서 일한 바 있다.

★ 최순임 본회 경북지부 상무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 부인회가 주최한 훌륭한 어머니 시상식에서 훌륭한 어머니상을 수여받았다.



★ 3M 장학금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나명희 한양대부속병원 간호부 차장이 5월 27일 참가증을 수여받았다. 3M 한국지사의 金炯鎭 상무는 이날 오후 1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이성옥 간협 제2부회장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명희 차장에게 참가금 2백불과 기념품 및 골드-핀 등을 전달받았다.

